

신안군 압해~암태 해상교량 이름 고심

공정률 90% 내년 4월 완공
높이 195m 세계 최대 고저주탑
명칭 공모 '천사대교' 최다
郡 지명위 내달 심의·의결



내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압해~암태간 해상교량의 지명(명칭)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칭 '새천년대교'로 불리는 이 교량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내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압해-암태간 해상교량의 지명(명칭) 제정을 추진하는 등 새교량의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연결하는 작업에 나서 주목된다.

가칭 '새천년대교'로 불리는 이 교량은 총연장 7.22km의 왕복2차로로 건설 중이며 이미 연도된 신안 중부권 주요 5개 섬(자은, 암태, 안좌, 팔금, 자라)을 압해도를 경유하여 육지(목포시)로 이어주는 연도교다.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 신안의 발전을 선도할 명실상부한 신안군의 육상교통 대동맥으로서 익산지방국도관리청 발주로 지난 2010년 9월 15일 착공해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상교와 현수교 형식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교량으로 우리나라 4번째 규모의 장대교량이며 암태도 측 사장교 주탑은 최대높이 195m의 세계 최대 고저주탑 사장교다.

특히 암태도 측 현수교는 세계 최초로 해협을 횡단하는 다경간 현수교로서 기히 세계의 다리 역사를 새로 쓴 기념비적인 교량이라 할 수 있다.

사장교의 주탑과 현수교의 주탑은 모두 신안군 다이아몬드제도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암태도 측 교량 형식은 신안군 1004개 섬을 상징하는 연장 1004m의 사장교로 건설되고 있어 교량 주요 구조부에 지역 특색과 상징성이 잘 반영돼 있다는 평이다.

군은 지역의 정체성을 오롯이 발산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량의 효용성을 배가할 수 있는 지명을 제정해 서남권 랜드마크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해상교량의 지명(명칭)을 공모했으며 총 126명이 30건의 교량 지명을 응모했다.

응모 결과 '천사대교'가 87명, '신안대교' 8명, '해태대교' 4명 등의 순으로 접수됐으며 군은 '희망대교'를 포함해 응모된

도 상위 4개 응모작을 대상으로 지난 21일까지 주민 선호도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선호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교량 지명(안)을 선정해 군지명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군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명(명칭)은 전라남도·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확정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함평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 9곳 선정

함평군은 최근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열고 2018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대상으로 9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10개 마을공동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평읍 가동마을을 비롯한 9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고 총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2018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대상 마을공동체를 선정했다.

또 위원회 전 개최된 심사에서는 공모 참가 10개 공동체 대표들이 사업취지와 계획 등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공동체 대표들은 사업 취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마을별 맞춤형 조언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군은 이날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심사 의견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제출받고 공동체 대표 회계교육 등을 거쳐 9월부터 마을 현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 인식, 노하우 등 모든 면에서 열약하다"며 "하지만 귀중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함평군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 도, 시·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함평군은 집행대상액 1766억원 중 1105억원(62.61%)을 집행해 행안부 기초자치단체 목표(55.5%) 대비 7.11%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 결과 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된 것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

를 달성하며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정체"라며 "이번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하반기 재정집행에도 온 힘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해 집행을 독려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무안군 공약이행 계획 구체화 8개분야 추진계획 보고회

무안군은 지난 21일 김산 군수 주재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8개 분야 71건(92개 세부사업)의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등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통한 원도심 활성화, 무안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개발 10건 ▲부자 되는 농수축산 30건 ▲행복복지 운영 확대, 출산·육아 지원 등 평생복지 12건 ▲희망가득 새일자리 사업 7건 ▲찾아오는 문화관광 7건 ▲열린 행정 안심교육 10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8건 ▲명품남약 조성 8건으로 실·과·소 이행검토 및 조정을 통해 정해진 92개 세부사업이 보고됐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목포무안신안축협 지역인재 양성·소외 이웃 보듬기

장학금 1천만원·쌀 500포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지난 20일 신안군청 회의실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문만식 조합장 등 축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신안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과 쌀 500포(10kg)를 신안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문만식 조합장은 "이날 행사는 나눔경영의 일환이었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축협을 이용하고 사랑해 준 지역민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장학금과 쌀을 기탁했다"며 "아직 우리주위에 소외된 이웃이 많지만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축협이 받은 사랑이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탁금은 신안군장학재단에서 우



수인재양성과 소외계층 지원 등에 쓰이며 사랑의 쌀은 신안군복지재단에서 소외계층과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지난 7월에도

무안군에 장학금과 쌀을 기탁하는 등 매년 나눔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에 장학금과 쌀을 기탁하는 등 매년 나눔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뮤지컬 '판' 무대 올린다

오늘 승달문화예술회관...지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무안군이 24일 오후 7시 3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통 창작공연 제작극장 정동극장의 뮤지컬 '판'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공감방방곡곡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 중 3번째 작품으로 공연시간은 2시간이며 관람료는 3000원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호태와 달수가 만담처럼 풀어내는 정치풍자, 세태 풍자는 웃음과 눈물뿐만 아니라,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극의 양식은 전통연희를 따르되 음악은 서양뮤지컬을 기본으로 해 조화롭게 섞여 특별하고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보통의 뮤지컬과는 달리 기승전결이 아닌 에피소드 형식을 가지고 있어 각 장면이 하나의 완성된 놀이 '판'이 되고 배우와 관객의 관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관객과 배우가 한데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한바탕 놀이 '판'이 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무안군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추진된다.

한편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www.muan.go.kr) 공연 및 행사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 53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7층, 코너, 전망좋은,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4920-9300